



고령친화 농업 활성화 전략



박대식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전문위원

1. 고령친화 농업의 범위 및 특성

‘고령친화 농업’이란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고령친화적인 신산업을 지칭한다. 즉, 고령친화 농업이란 ‘민간이 주체가 되어 농업부문에서 현재 및 미래의 노인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신생 산업’을 말한다. 고령친화 농업은 현재의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20년 후에 노인이 되는 베이비붐세대(1953~1965년생)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고령친화 농업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에 농업부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도시주민 및 비농업인도 대상으로 한다.

고령친화 농업은 ‘실버계층을 위한 농산물의 생산’ 또는 ‘실버계층이 주체로 참여하는 농업생산’이라고 정의할 경우에는 1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친화 농업을 ‘실버 생물 산업’(생명공학을 활용하여 실버계층이 요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1·2·3차 산업 모두에 해당된다. 즉, 고령친화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1·2·3차 산업을 포괄하는 복합 산업(6

차 산업)이다. 그러므로 고령친화 농업은 ‘노인을 소비자로 상정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과 ‘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고령친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을 포괄한다.

고령친화 농업은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환경친화 농업이다. 따라서 고령친화 농업은 농업발전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농업기술과 환경을 조화시켜 현대농법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령친화 농업에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 동안 참여할 수 있다.

2. 고령친화 농업 활성화의 필요성 및 목표

고령친화 농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농업부문에서 건강한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복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즉,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기능을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고령친화 농업'이 담당할 수 있다.

둘째,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즉, 생산적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립과 자활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적정 수준의 근로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보건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알맞은 영농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도 절감시킬 수 있다.

넷째,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도시의 유희인력을 농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농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인구의 농촌 유입은 농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발전될 수 있다.

고령친화 농업의 목표는 ① 노인들에게 알맞은 농업부문의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② 농촌에서 건강과 환경을 지키며, 노후생활의 보람을 찾게 하는 것이다.

3. 고령친화 농업 관련 사업의 현황

고령친화 농업은 그 동안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업구조개선정책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농림부의 농업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노인복지 패러다임이 생산적·참여적 복지를 지향하고, 도시 직장 은퇴자들의 농촌생활 선호 경향이 높아지면서 고령친화 농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친화 농업 관련 논의는 박대식 외(2000)의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에서

본격화 되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실버농업 개발 심포지엄」(2003)을 개최하였으며, 「실버농업 모델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2004~2006)로 추진 중이다.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에서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전남 함평군에서는 전원형 실버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도시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농촌에서는 농업인구의 급감으로 농촌의 공동화가 심각하여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 개념의 사회복지 농업이라 할 수 있는 실버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 예정지는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및 신광면 월암리 일대이다.

그리고 홍성 은퇴농장(대표:김영철)을 포함하여 4개소(홍성, 양평, 달성, 홍천) 내외의 은퇴농장이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성 은퇴농장의 경우에 주택규모는 7~14평이고, 보증금은 2,500~5,000만원, 식생활비(관리비 포함, 1인 기준)는 월 34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들의 작업 분야로 과수는 집과, 전정, 제조 작업, 채소는 파종, 김매기, 수확, 판매는 가족, 친지 등에게 무료로 제공 또는 판매한다. 홍성 은퇴농장의 경우, 2004년 말 현재 총 26가구 40명이 입주해 있으며, 영농 참여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4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은퇴농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령자·은퇴자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여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능력에 맞는 영



기획특집

농 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내면서 지역주민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가 있는 농장 및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주체가 되어 단지를 조성한 후 노령자, 은퇴자에게 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발유형으로는 '주택임대형 은퇴농장', '고령친화 농업형 은퇴농장', '종합복지형 은퇴농장'이 있다. 주택임대형 은퇴농장은 입주자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함께 거주·생활하면서 영농을 할 수 있는 15~30호 규모의 주거단지 및 농장이다. 고령친화 농업형 은퇴농장은 중산층 입주자를 대상으로 녹지 공간 등 쾌적한 편의시설을 갖춘 중규모단지를 조성,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30~50호 규모의 주거단지이다. 종합복지형 은퇴농장은 중산층 입주자가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편의·의료서비스, 복지시설 등을 갖춘 50호 이상의 대규모 복지주거단지를 말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05~2008년 기간 동안에 1,200개의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할 예정이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적당한 일거리와 운동거리, 놀 거리 등을 제공하고 이들이 살기 불편함이 없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05년에 100곳의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예산규모는 1개소당 3년간 1억 5,000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이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는 ① 농촌노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 생활환경 정비,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등의 체계적 실천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새

로운 장수문화를 정립하며, ③ 천혜의 자연환경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축적된 생활지도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적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④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생산적인 일거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감을 제공하여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지식·기술을 소득자원화 함, ② 노동과 운동·휴식이 적절하게 조화된 건강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함, ③ 학습과 사회활동 참여로 두뇌활동 활성화 등 노화 방지를 도움(노인을 농업과 농촌교육의 안내자로 활용하고 일기 쓰기·한자 학습 등을 통해 두뇌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함), ④ 가옥과 마을 환경을 노인에게 알맞도록 정비함 등을 들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도시민 전원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민 전원농업교육은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1년간 1,0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유료로 실시한다. 교육과정으로는 주말농장과과정(3일, 5회)과 전원영농과정(5일, 15회)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에게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형태인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4개소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충청남도 서천군 중천면 당정리,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평마을이다. 총

사업비는 1,056억원(국고 140억원, 지방비 361억원, 민자 555억원)이다.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는 복합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 시설)과 노인전용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설치되며, 4개소의 시범사업 단지는 2006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4. 고령친화 농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1) 정책방향

고령친화 농업의 정책방향은 ① 고령친화 농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②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령친화 농업 분야를 개발하며, ③ 노인들도 농업의 주요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 SWOT 분석에 따른 추진전략

〈표 1〉에는 고령친화 농업의 SWOT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 S-O전략으로는 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②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대책 마련 ③ 관광농업의 육성을 들 수 있다.

· S-T전략으로는 ① 고령친화 농업에 관한 학제

〈표 1〉 고령친화 농업의 SWOT분석

경영환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O1.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O2. 안전식품에 대한 선호 증가 O3. 도시민의 농업·농촌 관광 수요 증가 O4. 농산물 수출 기회 증가 O5.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특별 법 제정	T1. 농산물 수입의 지속적 증가 T2. 중국 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 T3. 정보화 등으로 인한 산업기반의 급격한 변화 T4. 농산물 가격 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
내부역량		
강점(Strength)	S-O전략	S-T 전략
S1. 농업 관련 사회기반시설 완비 S2. 농업의 기계화 확산 S3. 농업의 경량화, 바이오화, 탈 농경지화 S4.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대책 마련 · 관광농업의 육성	· 고령 친화적 농업에 관한 학제간의 연구 지원 ·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 · IT, BT 등을 접목한 농업과 타산업과의 연계 강화
약점(Weakness)	W-O 전략	W-T 전략
W1. 농업 경쟁력의 미약 W2. 농업·농촌의 활력 저하 W3.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부문간의 연계 미약 W4. 농외소득 기회 부족 W5. 시혜적 노인복지관 W6. 국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신 W7. 노인들에게 알맞은 작목, 농법, 농기계·기구 개발 부족	· 새로운 농업 분야의 개발 · 농촌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 · 생산적·참여적 노인복지 프로그램 마련 · 농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 고령 친화적 작목, 농법, 농기계·기구 개발 · 귀농교육 체계화	· 새로운 무역쟁점(GMO,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소득기회 확대 및 소득안전망 구축 · 관련 법·제도 개선 ·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 강화



간의 연구 지원 ②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 ③ IT, BT 등을 접목한 농업과 타 산업의 연계 강화를 들 수 있다.

- W-O전략으로는 ① 새로운 농업 분야의 개발 ② 농촌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 ③ 생산적·참여적 노인복지 프로그램 마련 ④ 농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⑤ 고령친화적 작목, 농법, 농기계·기구 개발 ⑥ 귀농교육 체계화를 들 수 있다.
- W-T전략으로는 ① 새로운 무역쟁점(GMO,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② 소득기회 확대 및 소득안전망 구축 ③ 관련 법·제도 개선 ④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 강화를 들 수 있다.

5. 고령친화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고령친화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① 법·규제 정비 및 표준 개발, ② R&D 투자 확대 및 세계 지원, ③ 추진체계 마련 및 인식 제고, ④ 성공사례 개발 및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 법·규제 정비 및 표준 개발을 위해서는

- ① 가칭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 시 고령친화 농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② 대상

지의 용도변경, 매립 또는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 R&D 투자 확대 및 세계 지원을 위해서는

- ① 고령친화 농업의 종합적 발전 방안에 관한 산·학·연·관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② 농장 개발과 경영 지원(a 고령친화 농장의 적정 규모 제시, b 지역특성, 노인의 신체적 조건 등에 알맞은 농사 품목의 선정·지도, c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농사기술 지도, d 농장경영기술 지도 등)이 필요하다.

● 추진체계 마련 및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 ①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②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③ 고령친화 농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④ 고령친화 농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성공사례 개발 및 확산을 위해서는

- ① 고령친화 농업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②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파해야 한다.

